

군산콩당보리축제, 가성비 '최고'

어린이날 가장 많은 관광객 축제장 찾아... 가족단위 젊은 세대에겐 친숙한 축제로 자리매김

군산콩당보리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정희, 김규창)가 개최하여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국제문화마을 앞 보리밭에서 치러진 '제12회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가성비 높은 축제'로 한 단계 성장한 축제로 평가받았다.

이번 군산콩당보리축제는 군산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콩보리밭, 끝없는 향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 '공간과 체험은 늘리고 추억은 키운다'는 축제의 의도대로 방문객들의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어린이행복도시와 관광광역화에 맞는 콘셉트로 이미 가족단위 젊은 세대에겐 친숙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에도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보고, 만지고, 느끼고, 관찰하는 체험활동과 놀이공간은 물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늘린 결과 어린이날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축제

장을 찾아 축제의 정체성을 높여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리밭의 향수와 추억을 달래주는 '풀바' 공연이 어른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운데 보리밭에서는 연날리기, 추억의 사진찍기, 보물찾기, 닭잡기 행사가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콩당보리가수왕 선발대회, 인기가수 공연이 펼쳐지면서 축제의 파급력을 장식했다.

보리떡, 보리아이스크림, 보리비누 등 새로운 보리상품과 전체 체험의 1/3은 보리체험들로 채워지고 먹거리 매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리축제다운 웰빙 식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부담을 한층 가볍게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셋째 날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위험 경보가 내리면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방문이 다소 줄었다는 것.

김규창 공동제전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로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나아가 축제가 구심력이 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제문화마을 앞 보리밭에서 치러진 '제12회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가성비 높은 축제'로 한 단계 성장한 축제로 평가 받았다.

어 최근 침체된 맥류시장을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위원회에서는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장 공간구성 등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조만간 실무위원들이 참여한 축제 평가를 통하여 내년 축제로 반영하여 준비한다면 축제의 성장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정현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공연 성황

지난해 11월 11일 개관한 군산 어린이공연장은 '어린이의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특별공연 및 다양한 민화영화 상영 등을 펼쳐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큰 명성을 얻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어린이공연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3일과 6일 양일간 가족단위 관객을 위한 특별공연을 진행하여 700여명의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고 가족들에게는 '행복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석 무료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레이저 비눗방울, 별뿔마름소, 애니메이션, 퓨전난타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야외 비블체험장 등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온 가족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특별공연을 준비하여 군산어린이공연장을 문화강성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공연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로 민화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공연장 대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1박 2일 시간여행 군산 시티투어' 큰 호응

첫 시범운영 57명 탑승... 7월부터 전면 시행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에 운영하는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의 첫 시범운영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운영을 시작한 시티투어는 시간여행마을에서 출발해 금강여행지, 은파호수공원(숙박), 고군산군도 선유도선착장에 이르는 B코스로 진행되어 사전예약자 53명, 현장탑승자 4명으로 총 57명이 탑승했다.

A코스는 금강여행지 출발 → 임피향교 → 철길마을 → 시간여행마을(숙박) → 새만금 바닷길 도보여행.

이번 시티투어의 첫째 날은 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초원사지관, 신홍동일부식가족, 동국사 등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철새조망대, 체만식문화관, 철길마을 및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은파호수공원 코스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은 비음향에서 유람선을 타고 선유도선착장에 내려 선유도해수욕장, 망주봉, 대장도, 장자봉 및 신유팔경을 감상할 수 있는 45m의 전망타워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스카이선라인을 체험하는 고군산군도 코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품보완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1박 2일 시간여행 상품은 ▲운행일시 매주 토, 일 ▲출발 9시30분 시외버스터미널, 10시 군산역 ▲탑승료 개인 10,000원, 단체(20인 이상) 9,000원 ▲사전예약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tour), 군산 시티투어 앱, 전화는 (☎) 동양해의관광(☎ 063-838-1199) ▲10인 이상 예약시 운행하며 군산시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한다. /군산=정현 기자

익산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포럼

익산시는 최근 화산배수장에서 수박, 방울토마토 등의 원예작물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40여명과 정현을 익산시장,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 조남석, 김태열 시의원, 라승용 명예농업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현장포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시설하우스가 상승 침수하는 땅성면 화산리와 신자리 일대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배수개선사업 설명에 이어 원예작물

라승용 명예농업시장 첫 행보

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포럼은 지난 ICT 스마트팜 현장포럼에 이은 두 번째로, 특히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이 참석했다. 또한 5월 1일에는 미래농정 혁신과제를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설명을 들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공정의 조직문화 구현한다'

원광대학교병원, 감사 나눔 선포식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이 최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공정의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감사 나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장은 가장 많은 직능의 직원들이 어우러져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상호 한마음 직장문화 선도가 필요적이라고 본 것이다.

일상의 생활 속에 가족,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사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행복이 생활화되고 전달되는 직장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

원불교 산하 종립 병원인 원광대병원은 교리 속에 숨 쉬고 있는 감사의 마음들을 직장 문화 속에 녹여 내에 대한 감사가 동료, 고

객에 대한 감사로 나눔과 공정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 경영진 및 교직원 일동이 참석한 이날 선포식에서는 감사 나눔 활동에 관한 계획 발표가 있었다. 더불어 감사일기 발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나눔 슬로건 당선작에 대한 시상도 곁들여졌다.

최두영 병원장은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긍정과 감사한 마음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코 큰 것에 대한 감사들이 아니다. 자신이 지금 숨쉬고 느끼며 동료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들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라며 이번 선포식 의의를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공설시장 5주년 특별 할인행사

청년물 '물랑루즈', 봄내음 축제기간 10일~12일 행사 다채

군산공설시장의 청년 상인들이 싱그러운 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공설시장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군산공설시장 임병진 상인회장은 봄내음 축제기간인 10일부터 12일까지, 현재 조성 중인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물랑루즈'의 청년 상인과 함께 하는 '공설시장 5주년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물 '물랑루즈'는 청년 상인 20개팀이 입점하여 6월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이번 봄내음 축제기간을 통해 화덕만두, 큐브 스테이크, 테이크 리본, 와플, 음료 등 전통시장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른 메뉴를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스터 에그(달걀 공예), 드라이 플라워

업서 제작 체험도 진행한다.

또 선착순 100명 뽑기 이벤트를 통해 청년물 상품권, 정년물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alldam2012)와 이웃 맺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피자 상품권, 영화 상영권, 기프트콘 등을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 방문고객에게는 경품 응모권이 배부되며 12일 14시부터는 공설시장 북문 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즉석노래자랑과 댄스 공연, 3인조 밴드 7080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봄 여행 주간' 행사기간 동안 방문고객에게 지급된 '경품 응모권'에 대한 추첨을 통해 은누리 상품권 20명, MTB 자전거 15명, 55인치 UHD TV 2명 등의 상품을 지급한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안전점검의 날'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익산시는 "최근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예방과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캠페인 행사를 익산남부시장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25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익산시와 익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 전북에너지 서비스, 자율방재단, LP가스 협회가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이 담긴 전단지 및 홍보물 책자 배부와 '생활 속 위험요소' 휴대용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특히, 익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전북에너지에서 남부시장의 노후화된 가스·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점검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